

상장 일자

24 OCT 2019

카테고리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 분석 담당자

김동현 | Tony Kim

research@coinone.co.kr

토큰 발행량

총 발행량 1,084,732,273

총 유통량 450,234,445

토큰 분배율

토큰 판매 40%

팀 및 초기 투자자 20%

커뮤니티 발전기금 20%

사업 운영기금 15%

어드바이저 5%

프로젝트 핵심인력

장민후 (CEO)

- 의료 치료비 견적 앱 '거울아거울아' 창업 및 운영
-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이태우 (CTO)

- 카카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KAIST, 컴퓨터과학 석사

제원우 (COO)

- 대웅,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로드맵

2019년 4분기

- '미세톡톡' 오픈베타 출시
- '모아' 정식 업데이트 및 오픈베타 출시

2020년 1분기

- 산모 데이터 분야 dApp MVP 출시

2020년 2분기

- 산모 데이터 분야 dApp 정식출시

2020년 3분기

- '모아' 정식 서비스 런칭

상장 명세서

휴먼스케이프

티커 HUM



환자 중심의 건강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블록체인을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당사는 2019년 10월 24일 휴먼스케이프 (HUM)를 상장한다. 현재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임상 시험자 모집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임상연구를 주관하는 기관이 모집자에 대한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연구적격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기관은 관련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휴먼스케이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M 토큰을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자 모집단계 이전에 환자 데이터를 구매하여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을 절감 가능하게 한다. 휴먼스케이프와 연동된 Dapp을 통해 수집된 환자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프로세스를 거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해당 데이터를 업로드한 환자에 대한 고유의 Verification Fingerprint가 생성된 이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수집된 건강데이터를 HUM 토큰으로 구매하면, 구매자는 이더리움에 기록된 Verification Fingerprint를 전송받고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환자의 비식별화된 건강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휴먼스케이프는 희귀질환 데이터 관련 Dapp인 '모아'를 2019년 4분기에 정식 업데이트 및 오픈베타를 출시할 계획이다.

Figure 1. 작동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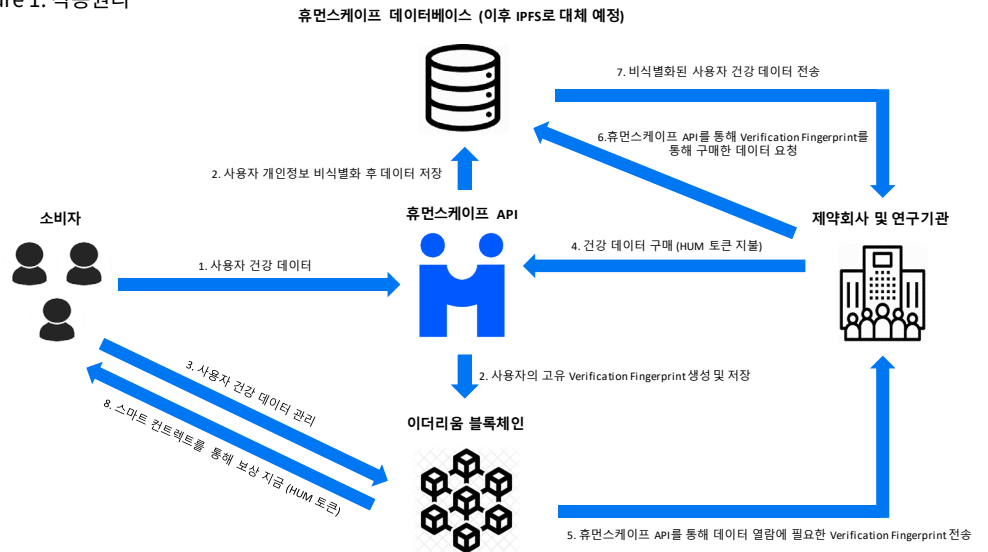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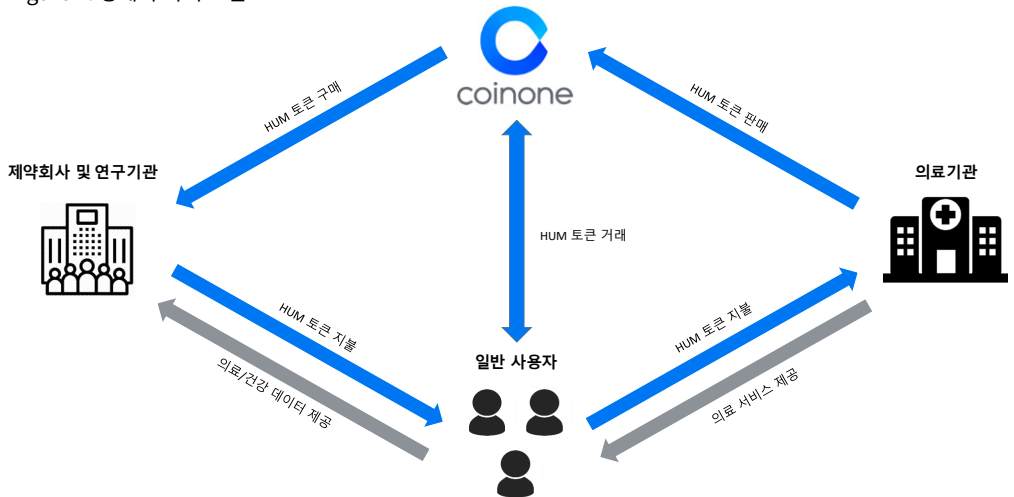


Figure 2. 경제적 가치 흐름도



Research Analyst

김동현 | Tony Kim

김동현 연구원은 현재 코인원 상장팀 소속이다. 이 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SparkLabs Accelerator와 초기투자전문 VC인 SparkLabs Global Ventures에서 근무했으며, 이에 더해 스타트업에서 사업개발 및 전략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학업으로는 토론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UC 버클리대학교 산하기관인 BerkeleyX에서 Blockchain Fundamentals Professional Certificate Program을 수료했다.

법적고지서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정보, 의견, 예측은 본 자료가 작성된 날짜 기준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실적에 대한 지침이 아니며 미래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의견은 자료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 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당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본 자료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